

2학기를 보낸면서

영양 문제... 2학기 생활... 보낸면서... 영양 문제... 2학기 생활... 보낸면서... 영양 문제... 2학기 생활... 보낸면서...

기득권 侵害論... 大學... 기득권 侵害論... 大學... 기득권 侵害論... 大學...



著 者 善 一 善 一 善 一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다준고주병 식품첨가물... 다준고주병 식품첨가물... 다준고주병 식품첨가물...

다준고주병 식품첨가물... 다준고주병 식품첨가물... 다준고주병 식품첨가물...

業者의 사회적 사명감 인식 중요... 業者의 사회적 사명감 인식 중요... 業者의 사회적 사명감 인식 중요...

자연식품중에도 많은 毒性物質 함유되어 있어... 자연식품중에도 많은 毒性物質 함유되어 있어... 자연식품중에도 많은 毒性物質 함유되어 있어...

포항제철은 서두르지 않고... 포항제철은 서두르지 않고... 포항제철은 서두르지 않고... 포항제철은 서두르지 않고...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986년 12월 2일(화요일)에 실린 '신·舊 식민지는 質的 차이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글은 식민지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고, '신식민지'와 '구식민지'의 질적 차이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한글사'와 '한글문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新·舊 식민지는 質的 차이 없다”

이 글은 '신·舊 식민지는 質的 차이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의 본론 부분이다. 이 글은 '신식민지'와 '구식민지'의 질적 차이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한글사'와 '한글문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이 글은 '신식민지'와 '구식민지'의 질적 차이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한글사'와 '한글문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수아병적 절충주의는 지양돼야

이 글은 '수아병적 절충주의는 지양돼야'라는 제목의 논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글은 수아병적 절충주의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수아병적 절충주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이 글은 수아병적 절충주의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수아병적 절충주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서주성

이 글은 '수아병적 절충주의는 지양돼야'라는 제목의 논설의 본론 부분이다. 이 글은 수아병적 절충주의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수아병적 절충주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이 글은 수아병적 절충주의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수아병적 절충주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ND論 現단계를 총체적 위기로 인

이 글은 'ND論 現단계를 총체적 위기로 인'이라는 제목의 논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글은 ND(신대중)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ND'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이 글은 ND(신대중)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ND'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예속자본의 토착적 기반 유무 해결등이 문제 '식민지국가 자율성'論은 현상적

이 글은 '예속자본의 토착적 기반 유무 해결등이 문제'라는 제목의 논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글은 예속자본과 식민지국가의 자율성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예속자본'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이 글은 예속자본과 식민지국가의 자율성에 대해 논제한다. 글의 시작은 '예속자본'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Advertisement for 'Grey Man' (灰色人에게) featuring a deer logo and text about a grey man. The text discusses the concept of a 'grey man' and its implications.

Large advertisement for ABC English Language Center. It features the text '27년 동안 이땅의 엘리트들 길러낸 시사교양영어잡지' and '時事英語研究 The Study of Current English'. The ad includes details about the center's history, its focus on current events in English,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BC English Language Center.

Advertisement for Sony featuring a portrait of Morita Akio and the text '나는 세계의 SONY를 이렇게 키워왔다'. The ad promotes Sony's success and the role of Morita Akio, highlighting the company's growth and global presence.

80년대 추풍검정

- ◇글내는 순서
1. 한국문학에 있어서 이념논쟁
 2. 문학장르별 특성에 있어서 시부분
 3. 문학장르별 특성에 있어서 소설부분
 4. 한국문학에 있어서 등인지활동과 그 특색

80년대도 이제 후반기로 돌고 있다. 85년까지를 잘라 보면, 80년대 소설은 지난 70년대에 비해 '협동'이나 '진기'와 같은 '협동'이 훨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소설사에 남아도 부수적이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유행가처럼 유행하지 않았고, 추파를 찌르는 식으로 부각된 정통작가들의 경우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오직 문학의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가 70년대 작가들 사이에서 종종 훼손되었음에 반해, 80년대에 와서 유망작가로 부상한 신진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범적으로 가다듬고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점 80년대 작가들이 정통주의의 본

위를 보이는 가운데 씩아 울린 업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70년대 말에 이문열, 조세희, 김성동 같은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높은 판매고를 거느려 살아 파란 대우를 받아 왔던 중진소설의

삶의 총체적 형상화 추구

작가들은 「계단」을 조정하는 결과를 보았거나 협진업, 일철우, 최수환, 이준영, 양선규, 윤정호, 안귀자, 김환숙, 이상문 등과 같이 개성과 무개성과 성실성을 겸비한 신진작가들이 다수 나타남으로써 중진소설은 한층 빠른 속도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80년대에 등장한 신진들은 70년대의 「버리고 싶은 유산」인 중진소설과 그 이유를 분자 그대로의 대중소설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소설을 본격적인 예술소설과 대중소설로 양분해서 보는 오래된 전통은 지난 70년대에 우려할 만할 정도로 보여졌는데 80년대에 와서 이 전통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 초의 우리 시단이 민중시의 순수시의 「길거리」인상을 드러낸 것과 80년대 초의 작가들이 본격소설과 대중소설 사이의 경계선을 아주 확실하게 그어 놓는 결과를 보여 낸 것은 좋은 대조가 된다고 하겠다.

소설을 양분해서 보는 전통을 회복함으로써 가졌던 소설의 영역을 확장시켜 온 것은 분명 80년대 작가들의 개성이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80년대 작가들이 70년대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면에 있어 두루한 한계를 조정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삶의 현실과 작가들의 소설 속에 형성된 현실 사이의 거리가 80년대에 와서도 눈에 띄게 좁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70년대의 작가들은 80년대의 작가들에게 현실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못처럼 썩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다.

70년대의 작가들 중에서 치열한 작가의식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소위 현실에 대해 깊은 연민을 표시하거나 갈등심리가 평범해 있

상황을 거뎈 80년대초의 작가들의 노력이 낳은 산물의 하나로 「象徴的 發言」을 꼽아볼 수 있다. 70년대가 저물어 갈 무렵, 한국문학자들은 당시의 우리네 삶의 실상을 날카롭게 포착한 상징어를 들을 수 있었다. 「난장이」, 「작

可視的 世界的 저변을 탐색하는데 몰두

시대의 현실의 底層을 투시하는 작가시각 들보여 80년대의 여성작가들 오늘의 삶 연어내는데 노력



본위거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재해석의 별류가 늘어나고 하고 끌어 들이기도 하는 것이라 총체적 파악과 예술의 폭이 조절되기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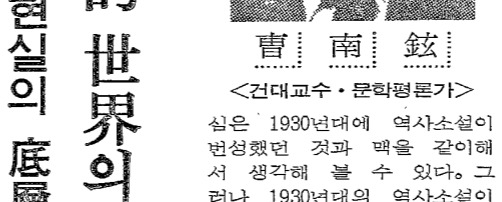
80년대 작가들은 70년대 작가들이 위와 같은 메타니즘에 속절없이 「象徴적」인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그 자세와 방법론은 배우려고 하지는 않았다. 80년대에 유망작가로 부상한 신진들의 작품들을 보면 작자의 바에 빠지면서 말해진 내면을 일깨우는 것이라 「특가소설」은 공통화되어가는 조적이나 집단 속에서의 한 개인이 왜소하고 무력하기 작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죽」은 자아상실과 개성상실의 징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직장과 생활인을 향해 울리는 경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80년대 작가들은 집단, 조직, 명벌, 폭력, 집합의 지의 앞에서 피해당하거나 무력중이나 자아상실의 별적 징후를 내 보이는 개인을 포용하고 구제하려는 뜻을 더욱 더 잘 살리기 위해 상징적인 장치들, 들름, 상징적 장치의 유무가 한권의 소설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사건이 기본적으로 공감을 살수 있어야 상징적 장치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법이다.

위와같은 상징적 발전들은시대와 현실의 저층을 투시할 줄 아는 작가들의 능력이 낳은 것임에 틀림없지만 사회적 상상력이 시적 상상력을 가미한 결과로도 보여진다. 지난 70년대에 사회학적 상상력으로만 치달은 작가들

東岳路

『지난 88년, 30여명의 동문들이 廣州 嶺南大學 동문회를 발족, 출판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임진전를 1년간의 휴지로 보냈다. 이듬해에 다시 발족한 동문회는 『東岳路』를 발간하여 동문회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은 1985년 12월 2일(화요일)에 발간될 예정이다.』

80년대 초에 全南國, 文淳太, 金周榮, 趙廷來, 李文烈 등의 기성작가와 玄吉善, 李相文 등의 신인이 써낸 일련의 소설들이 현실의 底層을 드러내기 위해 그 씨앗이 된 과거를 소급해서 찾아 들어간 적절한 예라 할 수 있다. 한 인물의 과거를 캐는 방법을 썼든 아니던 과거의 한 역사적 사건의 뿌리를 찾는 방법을 썼든 이들 작가들의 과거에 대한 비사한 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공지와 자부심

이 학교발전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교유의 열을 피웠자는 취지로 설립된 「신라문화연구소」는 신라문화 재조명과 부흥을 위한 「신라문화연구소」로 승격되어 학이 마땅하다며 자신의 소신을 힘있게 밝힌다.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간대교수·문학평론가』

中等教師 校監昇進
中等教師 校監昇進
中等教師 校監昇進

30년 전통의 外國語 專門 Training Center
TOEFL (아카데미/이제유)
VOCABULARY
영어 순해
대학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영어 실력 기초
한인회화

Move up in the World
당신의 외국어 실력은 얼마나 됩니까?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외국인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는 보다 정확한 외국어를 구사해야 하는 도전을 시시각각 받고 있습니다. 「국제외국어학원」은 성인들을 위한 외국어 종합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YMCA
英語·日語·中國語
佛·獨語·漢文
美國人회화
TOEFL·New Horizon
70년 전통 외국어교육의 전통

1987년 2월 졸업 예비군학생 진출신고
예비군학생 진출신고
예비군학생 진출신고

鍾閣出版社
734-1161 739-5551

KAVEP
시청각 영어회화 코스
KOREA AUDIO VISUAL EDUCATION PROJECT
대학원시험준비반 (대학)

국제외국어학원
광화문 교육회관2층 (교육인내) 733-4911-2

영문과 동창회 창립총회
동국대학교 영문과 동창회 발기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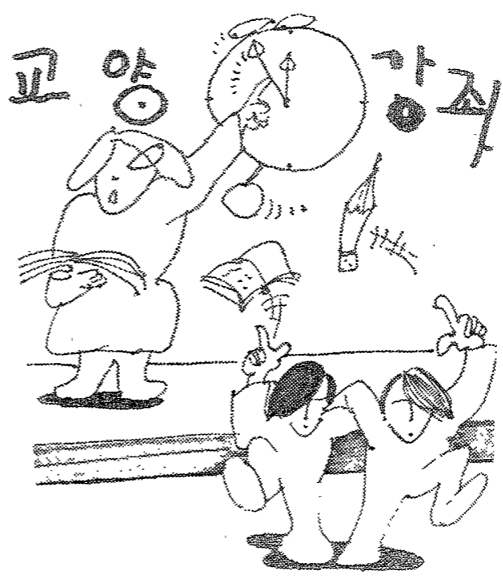
대학신문의 광고문의
741-1166

고양과목의 문제점

고양과목의 차이는 영미권과 유럽권에서 크게 다르다. 영미권에서는 고양과목을 대학에서 가르치며, 유럽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고양과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고양과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고양과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高校教育의 연장적 성격 탈피해야"

고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은 연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연장적 성격이란 무엇인가? 연장적 성격이란 무엇인가? 연장적 성격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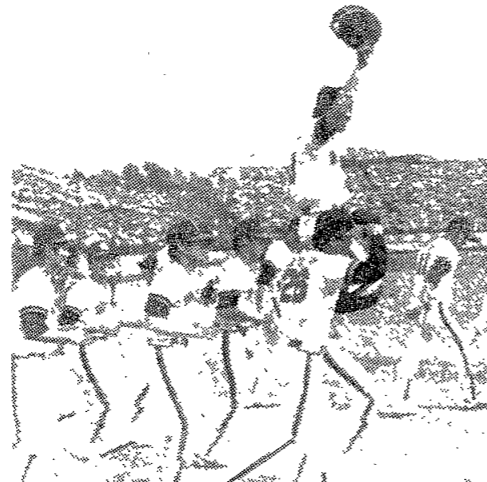


대학교육 정상화 위한 개선안 발표

전임교수 확보 등 핵심문제 많아.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이 개선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일천수화이론과 문화선형에 기여

문화선형이론과 일천수화이론은 문화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이론들은 어떻게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가?



연구·레슬링部 大學頂上 奪인

대학의 연구부와 레슬링부가 대학 정상에 올랐다. 이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카메라 등장

카메라가 등장했다. 이 카메라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카메라 등장
이 카메라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카메라가 등장했다. 이 카메라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레슬링
레슬링부의 활약을 소개하는 기사.
레슬링부의 활약을 소개하는 기사.

정은 아니니 옳하지 않은 출가 政하면 百姓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논평.
정치와 사회에 대한 논평.

내년, 5개 종목에 43명 스카우트 계획
스포츠 관련 소식.
스포츠 관련 소식.

롯데 인삼맛짬에는 인삼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인삼의 맛을 곱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인삼맛짬은 대한민국 전매청 허가품입니다. 입안이 텁텁할 때 인삼맛짬을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참쌀한 맛이 입안을 개운케하고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롯데제과

